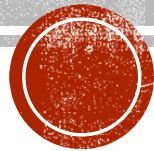


9강 올림포스 12신(5)

12. 디오니소스



제우스의 아기 (6개월)

→ 헤라가 질투해서 변신해서 나타난

제우스와 사귀냐고 물을, 맞다고 대답

한데 진짜 제우스인지 어떻게 알아?

의복을 함께 덮

변신하지 말고 신의 모습으로

나타나달라고 부탁 → 불타죽음. 아기를 꺼내서 허벅지에 넣음

12. 디오니소스(바코스)



- 포도, 포도주의 신 (술, 쾌락)

- 신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나 신이 되다.



1) 출생과 유년

- 헤라의 질투

- 어린 염소로 변신하여 산에서 자라다

세메르에게 자해에게 양육 부탁.

그 부부를 헤라가 미치게 함, 부부가 서로를 죽임

강박증 같은 제우스가 디오니소스를

노아치아의 산으로 보냄.

2) 유랑, 통음난무

- 포도 재배, 포도주 제조법 터득

- 헤라에 의해 이집트, 시리아, 인도 유랑- '마이나테스' 동참

칼살고있는 제질투에서

디오니소스를 미치게 함

디오니소스를 숭배

(여자, 호정)



고대 농경 사회 - 황소 숭배

특정한 날에 황소를 들판에 품.
뛰어다니는 황소를 잡고 그 자리에서 피와 날고기를 먹음
>>> 신과의 일체감, 열광, 도취

■ 디오니소스 숭배

- 민중의 열광적 숭배 (가난하고 억압받는)

- 황소를 섬기는 관습(이탈리아 남부)이 디오니소스 숭배 의식에 도입

- 그리스 북부 (도시국가) -> 소아시아: 레아가 광기 치료, 종교 의식 전수 => 신앙

- 테바이(고향)에 가다

다인노스의
행거니

제대코된

디오니소스를 감옥에 가두려고 함

>>> 왕이 미치고 아들을 죽임, 나라 황폐화

신탁: 디오니소스의 화를 풀어줘야 함. 박해한 장본인을 죽여라
왕이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함

그런데 테바이 왕이 무리를 못들어오게 함.

근데 궁금하긴 해서 왕이 밤에 몰래 구경하러 산에 감

여자 신도들에게 사자로 오인 당해서 찢겨 죽음

그 여자 신도들 중에는 왕의 어머니가 있었음

이동.

배를 탄 무리.

선장과 선원이 무리를 노예로 팔려고 함

>>> 배에서 포도나무가 자라고 선장과 선원이 돌고래로 변해서

바다에 뛰어듦

디오니소스를 박해한 사람들을 죽임.



■ 영광

- 그리스 전역에서 숭배
- 세멜레를 찾아 지하세계로 가다 **에페니와신이 된 영광을 함께**
- 세멜레와 함께 올림포스로 가서 신이 되다



■ 디오니소스 신앙 (**판치양음**)

소아시아-> 그리스 북부-> 그리스 전역
(리아) **리아.티바이**



그리스 민주주의의 시작 : BC 6c

올림포스 신앙은 지배계층이 숭배 (왕제)

하지만 디오니소스 신앙은 피지배층이 숭배

3) 디오니소스 숭배

- 술과 축제

- 일상에서의 해방, 자유 구가

-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자들의 스트레스와 불만 해소시켜 준다. + 노예

- 민간에 뿌리 내린 신앙

- 지식인들은 이 신앙의 광기에 반감

-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

올림포스 12신에 포함 X
(갈라티)

올림포스 12신에 포함
(인류, 호메로스 다음세대)
(산들의 탄생)



- 디오니소스 축제

- 겨울 밤, 산에서 벌어지는 축제
- 술과 춤: 삶의 활력이나/일상 회피
가면 → 악원능발산

- 종교와 사회의 억압 완화



아코폴리스
디오니소스극장

4) 연극의 신

- BC 6~ BC 5세기 경(아테네 중심)
-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시작된 연극 (여신도+가면)
- 그리스 비극

+희극, 풍자극..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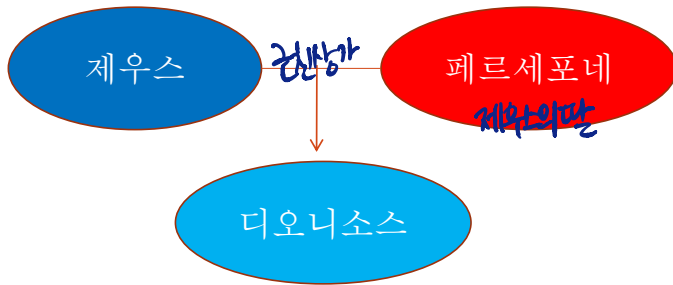
오르페우스를 능가하는
유일신 신앙

➤ 오르페우스 신앙의 디오니소스

'탈근의신'과 다름을 대내하는

■ BC 6세기 오르페우스 신앙 확산

"인간탄생"



- 욕망을 절제하는 ~~금욕~~ 생활

- 자기 정화를 통해 영생, 구원의 희망

선과의 접점이 있다는 것이 욕망하는 신앙과의 차이점

제우스가 디오니소스에게 지배권을 물려주겠다고 다짐
헤라가 눈치챈. 자신의 아들도 있는데 왜 디오니소스?
티탄을 사주함, 디오니소스를 먹여치움
화난 제우스, 티탄에게 버락을 내려서 재가 됨
이 재에서 인간이 탄생함

>>> 인간은 티탄의 악한 면+디오니소스의 신성 내재
자기 수행, 자기 정화를 통해 신성을 되찾을 수 있음, 영생



➤ 올림포스 신앙과 디오니소스 신앙

■ 올림포스 신앙

- 지배계층(왕과 귀족)의 종교 *통치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종교 (정당성, 기복장, ...)*
- 인간은 신에게 제사를 바치는 존재 *(별개)*

고대 그리스 말기

그리스의 대변

왕, 귀족이 몰락하여 ↓

저속인의 신의 반항계급 공격

■ 디오니소스 신앙

- 민중의 종교 *: 저속신앙, 농가, 노예*
- 술과 춤의 축제(광기)
- 억압에서의 해방 *분출*

고대 그리스

이성 < 감성

합리주의 < 신비주의

→ 철학자들의 욕망

but 그리스 말기 ↑



➤ 올림포스 12신

■ 대립과 보완 관계

헤라/ 아프로디테 결혼 ↔ 자유

아테나/ 헤파이스토스, 아테나/ 아레스 전쟁

아테나/ 아르테미스 도시 ↔ 야생

헤스티아/ 헤르메스, 헤스티아/ 헤파이스토스

데메테르/ 아르테미스

아폴론/ 디오니소스

이성, 질제

광기, 자유

한여름밤: 햇빛, 어둠.

→ 그간판화는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결합

ex. 그리스비극: 아폴론적인 형식 + 디오니소스적인 내용 (막장)

